
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기획재정부 | | 보도자료 | |
| 보도일시 | 2021. 8. 4.(수) 17:00 | 배포일시 | 2021. 8. 4.(수) 16:00 |
| 담당과장 | 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 박성주(044-215-5670) | 담당자 | 류남욱 사무관 (jknamu@korea.kr) |
| |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 손창범(044-215-5210) | | 이영수 사무관 (ys7024@korea.kr) |

안도걸 제2차관, 건설 현장 폭염·방역 대응 현장점검

-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진료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 민간병원 코로나 진단비용 즉시 지원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.4일(수)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‘고속도로 강진~광주간 2공구 건설현장’을 방문하여 ① 폭염 대책 ② 코로나 방역 등 근로자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< 건설현장 방문 개요 >

- (일 시) '21. 8. 4.(수) 16:00 ~ 17:00
- (장 소) 전남 영암군 영암읍/ 고속도로 강진~광주 간 2공구 건설공사
- (참석자) 제2차관, 도로공사 사장, 산업안전공단 이사장

- 안 차관은 지난 8.2일(월) 경제부총리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방문 시 건의*된 “건설근로자 코로나 검사비 지원”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

* 현재 선별진료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건설 근로자가 코로나 증상이 의심 되에도 민간병원에서 자가 부담(3~10만원)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견

-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건설공사의 경우, 현재 총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*를 활용하여 코로나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일 계약집행에 관한 지침을 405개 중앙부처·공공기관에게 긴급 시달하였고,

*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지출해야 하는 법정 비용

-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민간 발주 공사현장에서도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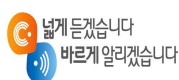
- 그리고 7.27일(화)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*이 시달된 만큼, 이 지침이 공사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.

*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

- 한편,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방역담당자는 작업 개시 전 근로자 체온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작업현장 출입을 허가하고,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함과 동시에

-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의 경우, 방역 지침이 잘 전달되도록 다국어 포스터를 부착하고, 수시 교육 반복 실시 등 맞춤형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* 고속도로 강진~광주 건설 근로자 : (전체) 843명 (외국인) 71명 (8.4%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